



전통문화연구회 '얼수'

“좋은 기획에 관객·후원 따라오더라”

상주단체와 손잡고 '작은 기적' 일군 광산문화회관



타악무지킴이 '몽키즈'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해설이 있는 발레 '한여름밤의 꿈'

지난해 12월 광산문화회관 상주단체인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타악그룹 얼수는 삼성전자 광주공장에서 열린 '행복 나눔 음악회'에 참여했다.

두 팀이 무대에 선 사연은 이렇다. 지난 9월 한 기획사 주최로 삼성전자 축제가 열렸다. 이날 광주여성필하모닉의 공연을 봤던 삼성전자 직원은 10월 광산문화회관에서 열린 광주여성필하모닉의 '바이올렛 콘서트'도 관람했다. 김유정 광주여성필하모닉 단장과 인연을 맺은 그는 사내 합창 동아리 창단과 관련, 이런 저런 문의를 하고 도움을 받았다. 얼마 후 그 직원은 행복나눔 음악회를 직접 기획했고 광주여성필하모닉, 얼수 초청공연과 합창 동아리 데뷔 공연을 함께 열었다.

이 행사를 발판 삼아 광산문화회관을 올 한해 상주단체를 중심으로 메세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산 지역 사업장을 찾아가 공연을 선보이고, 또 그들이 공연장을 찾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 중심 프로그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또 다른 문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지역 문화계에서 광산문화회관의 변화를 눈여겨 보는 이들이 많다.

사실, '광산'은 낙후된 곳, 변두리라는 의미가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적어도 문화 향유 면에서는 어느 지역 주민들보다 행복한 동네다. 광산문화회관의 존재 덕이다. 주택가에 자리잡은 광산문화회관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최우수상·보고서 발간

대기업 피아노 기증 ... 국비 3억 확보 등 성과 메세나로 활동 폭 넓혀 ... 타 공연장서 벤치마킹

은 550석 규모의 작은 공연장이다. 2002년에 건립된 문화회관은 오랫동안 학예회나 기념식 등이 열리는 '행사장'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광산문화회관에서 어떤 공연을 기획하나 기대가 높다. 공연 관련 예산이 1000만원에 불과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작은 기적이다.

변화가 일기 시작한 건 지난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부터다. 이 사업은 지역 거점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결합을 통해 지역 문화를 키우는 프로젝트다. 광산문화회관은 2012~2013년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그린발레단, 원컴퍼니와 함께 작업했고, 2014~2015년은 원컴퍼니 대신 타악그룹 얼수가 활동하고 있다.

광산문화회관은 지난 201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합회에도 가입, 다양한 공모 사업에 눈을 돌렸다. 광산에서 태어난

운상원 열사의 이야기를 그린 '님을 위한 행진곡', 탈린트 박철민과 함께한 컨템포러리 아리랑 콘서트 '아리랑 우리랑' 등을 무대에 올렸다. 또 세계적인 첼리스트 양성원과 프랑스 클라리넷 앙상블이 출연한 '메리 레봉마스', 재즈 그룹 '스톤렌지' 등의 공연도 열렸다.

광산문화회관에서 공연이 활성화되고 입소문이 나면서 자연스레 하드웨어도 갖춰지기 시작했다. 무대 닷마루 등을 확충했고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에서 독일산 피아노를 기증했다. 또 공연장의 프로그램과 음향, 무대 시스템 등을 체크해주는 '문화회관 컨설팅 사업'에도 선정돼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다. 2013년에는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았다. 1억 7000만원을 들여 조명 시설을 확충했고 음향, 무대 보완 등의 사업을 지난 2월초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광산문화회관의 성과는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

회가 주최한 '2014 지역협력형사업 전국성과 공유 워크숍'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광산문화회관의 변화는 문화를 바라보는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광산구청장은 지난 2011년 자치구 처음으로 문화기획 전문위원으로 이현숙(48)씨를 선발했다. 이씨는 전주시립극단 단무장, 전주전통문화관 공연과장, 전주 세계소리축제 행사부장 등을 역임하고 중앙대에서 예술경영을 전공한 전문가다.

광산문화회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도 만들고 있다. 올해 발간된 세번째 보고서에는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3개 상주단체 사업 소개와 함께 타 지역의 사례, 각종 지표 등 공연장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타 공연장들이 꼼꼼히 읽고 벤치마킹할 내용들이 많다.

이현숙 전문위원은 "광산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들을 보고 놀라는 사람도 있고, 마니아층도 생겼는데 앞으로 유료공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숙제"라며 "문화와 관련한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062-960-88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동신대 차두옥 교수

청소년 영화 '잃어버린 이름' 크랭크인

게임중독 사회에 경종

청소년 교육을 위한 영화 연출 작업을 해온 동신대 차두옥 교수(방송연예학과)가 게임중독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영화 '잃어버린 이름'을 크랭크인했다.

이달 중순부터 촬영에 들어간 '잃어버린 이름'은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인 나정미씨가 시나리오를 쓰고, 차교수가 감독 및 감색을 맡은 작품이다. 이 영화는 맵시교육원이 기획하고, 화순군이 제작한다.

동신대 방송연예학과 학생들과 화순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로 출연할 예정이며 3선 의원이자 우리나라 여성 검사 1호인 조배숙 변호사가 엄마 역할로 출연한다.

영화는 게임중독에 빠져 게임 낙태임으로 살아가는 주인공 민규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서정적으로 그리게 된다.

차교수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스트레스를 푸는 오락일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폭력성 온라인 게임의 유해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면서 "기성세대들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온라인 게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 폐해를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차교수는 이달 말까지 제작을 끝내고 극장 상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관련 시설에 DVD를 배포할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청소년 게임중독 영화 '잃어버린 이름' 제작에 참여하는 차두옥 교수와 학생 배우들.

광주정보문화진흥원 '동북호랑이' 제작 참여

안중근 의사 이야기 주제

한중공동제작영화

취순감독 광주에 재현해 촬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주제로 한 한중공동제작영화 '동북호랑이'(가제) 제작에 참여한 다.

이 영화는 한국 무일영화사와 중국 북경고실영상문화유한회사(이하 북경고실영상)가 공동으로 제작한다. 제작비는 200억원 규모다. 무일영화사와 북경고실영상사는 1년여 간의 역사적 자료 검증과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지난 2014년 12월 공동제작에 관한 최종 계약을 마쳤으며, 내년 1월 크랭크인 할 계획이다.

영화 제작에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의 감독을 비롯한 한중 양국의 경험 많은 스태프 배우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안중근 의사

광주진흥원과 무일영화사는 1900년대 항일운동의 근거지인 동북 지역의 일부와 안중근 의사가 수감됐던 취순감옥을 광주에 재현, 촬영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국제비즈니스호텔 메디컬센터 긴급임대

남구청이전 완료
광주제2지하철(순환선) 백운역 확정
백운고가도로 철거후 지하화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봉선동 3지구 개발 진행중
주차시설(타워60대)확보
현금투자 최적지역
백운광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향후 부자까지 1순위 지역

8층 (120평)	병,의원 (피부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
7층 (120평)	병,의원 (치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6층 (120평)	비즈니스 호텔
5층 (120평)	비즈니스 호텔
4층 (120평)	비즈니스 호텔
3층 (120평)	비즈니스 호텔
2층 (120평)	프랜차이즈 커피숍
1층 (240평)	상가4동, 개인의원, 약국, 편의점, 식당, 피부및사시, 한의원, 판매시설, 참치전문점
지하층 (240평)	스포츠맛사지, 유흥/댄스주점, 노래방, 오락실
지하2,3층 (2400평)	사우나, 7080라이브, 나이트클럽, 플라텍

국제비즈니스호텔 메디컬센터 (병원 개인의원, 약국환영 등) (백운동 국제비즈니스호텔)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21세기 산업개발 **010-2112-3232**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